

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	보 도 자 료	(배포) 2017. 9. 10(일)
즉시 사용		
담당	국무조정실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지원단	팀장 주호성 , 사무관 최재혁 (02-3148-0412, 0413)

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1차 조사 마무리
- 검증위원회 입회 하에 공정·투명하게 시민참여단 선정 -

- 「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」(이하 ‘공론화위원회’, 위원장 김지형)는 8.25일부터 실시한 1차 조사를 9.9일 22:00경에 마무리했다.
-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전국민 중 성·연령·지역에 따른 일정 비율로 무작위 추출한 전화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신고리 5·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(중단, 재개, 유보) 분포 등을 알아보고, 국민을 대표할 시민참여단 참여 희망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.
- 16일간 진행된 이번 조사의 최종 응답자 수는 20,006명으로, 당초 목표였던 2만 명을 달성했다.
- 90,570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39,919명과 전화통화를 실시하였으며, 최종적으로 20,006명이 1차 조사에 응답했다.
- 이번 조사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50.1%의 응답률을 보였다.
- 한편, 시민참여단 참가 의향을 밝힌 응답자는 5,981명으로 최종 응답자 중 29.8%였다.

- 1차 조사는 시민참여단 구성과 숙의과정 전후의 비교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했다.
 - 따라서 1차 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시민참여단에 대한 최종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때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.
- 공론화위원회는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참여단 구성에 들어갈 예정이다.
 - 시민참여단 500명은 1차 조사에 응답한 20,006명 중 참가 의향을 밝힌 응답자(5,981명)를 대상으로 성·연령·신고리 5·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(중단, 재개, 유보)분포 비율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해서 선정하게 된다.
 - 시민참여단 구성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「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」(9.8일 보도자료 참고) 입회 하에 시민참여단을 선정할 예정이다(선정과정 촬영공개 : 9.11(월) 14:00 한국리서치 GD룸).
- 공론화위원회는 9.13(수)까지 시민참여단 구성을 완료하고 이틀 간 안내과정을 거친 후에 9.16(토) 시민참여단 전체가 참석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.
 - 오리엔테이션은 충남 천안시에 소재하는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,
 - 오리엔테이션 이후 한 달간 다양한 숙의 프로그램을 통한 충분한 학습과정을 거친 후, 10.13(금)~15(일) 2박 3일간의 합숙 종합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모든 조사가 끝나게 된다.
- 한편, 공론화위원회는 1차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사에 사용된 1차 조사 설문지를 공개했다(붙임).

붙 임 :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(1차 설문지)